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카드론까지 내몰린 사장님들

1 1093조 부채 경고등

빛을 값기 어려운 시대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이 더디다. 빛이 늘면서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제약이 커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개인까지 빛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 걱정이다. 빛 값기 어려운 사회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 서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정책대출과 최근 식자재 가격, 임대료 부담 등이 더해지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카드론으로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다"며 "연체만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버텨는데, 이젠 답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대출로 연체를 미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0.8%)은 전년

(1.0%)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원, 가계대출 1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은 1년새 2.9%(1000만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서도 최근 폐업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업종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통해 버텨온 영세사업자들은 매출 회복 없이 원리금 상환만 늘어 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외식과 식료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Fed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로이터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 연은 총재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 장기화와 물가 확산 가능성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지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보던 시장 분위기는 약해졌고, 물가가 다시 흔들릴 경우 다음 선택지가 인하나 아닌 긴축 쪽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경계감은 커졌다.

이 흐름은 국내에도 직접적인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 어두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좁히는 구조로 이어진다.

성장·물가 전망 상향에 인하 명분 약화

>> 1면 '한은·美 연준...'서 계속

성장률 상향은 경기 방어를 위한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물가 전망 상향은 인상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금통위 내부 기류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도 직전 회의보다 뚜렷하게 상향했다. 지난 2월 전망에서는 21개 점 가운데 2.50%에 16개, 2.25%에 4개, 2.75%에 1개가 찍혔지만, 이번 5월 전망에서는 3.00%에 10개, 2.75%에 7개, 3.25%에 2개, 2.50%에 2개가 분포했다. 금리 전망의 중심이 현 수준 또는 인하 가능성에서 인상 경로로 이동한 셈이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 문제를 "언제 올리는냐, 얼마나 빨리 올리는냐, 어디까지 올리는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두고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도 인하보다 인상 리스크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4월 연방공개

/김주형 기자 gh471@

“

고금리·내수부진에 상환능력 약화 만기연장·대환대출에도 한계 상황 은행권 막히자 카드론 의존 확대 1인당 평균 대출 3억4000만원 카드론 42조9941억 부실 우려 연체·폐업 늘며 취약차주 부담 ↑

”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전월 말(42조902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카드대출로 이동하는 흐름은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고금리 장기화, 소비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연체 증가와 폐업 확대, 금융권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분묘 개장 공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지 번	분묘 기수	비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산1-23~산1-29, 산1-31~산1-39, 산1-43~산1-50, 산1-53~산1-59, 산1-61~산1-66, 산1-71~산1-80, 산2, 산3-1, 산3-4, 산3-5, 산3-7, 산3-10~산3-19, 산4-10~산4-12, 산36~산41, 산4-1, 산4-9, 1170~1192-2, 1194~1224-5, 1226~1228, 1230~1237, 1239~1258-1, 1166, 1167, 1259~1260-1, 1262~1269-1, 1271-3, 1195-3, 1187	83기	유골 등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독지리	918-29, 918-314	2기	

2. 개장사유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상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공고기간 : 2026. 06. 01. ~ 2026. 8. 31.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 (개장 후 이장비용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개장장소 후 안치 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 후 이장 (개장 후 이장비용 지급)
- 무연분묘 : 화성시 관내 공원묘지 또는 인근 납골당 안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7. 안치기간 : 개장(안치) 후 5년간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제출

9. 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 (☎031-369-8320~2)

10. 기타사항 : 본 분묘개장공고 후 무연분묘 개장 및 공사과정에서 동일 분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26년 06월 01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장